

#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중심으로\*

Adaptation of a single parent's child to school life: Focusing on individual resources,  
family resources and developed environmental resources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교 수 박 정 윤\*\*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원 아 름\*\*\*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Park, Jeongyun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Ang Univ.  
Master's course Won, Ah-Reu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how effective individual resources, family resources and developed environmental resources are in assisting the adaptation of a single parent's child to school life. The subjects were 284 first-year middle-school students with a single parent who were included in the first year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Research Panel 2010 data. The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18.0 softw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2014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 박정윤(pjy4838@cau.ac.kr)

\*\*\* 교신저자 : 원아름(smile\_areum@hanmail.net)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self-esteem, self-resilience, and peer relations were all shown to have an average of higher than 2 on a 4-point scale. Positive perceptions of parenting attitudes were 2.87, and negative perceptions 2.38. Computer usage was high, scoring 2.42, but mobile phone usage was average, at 2.02. Of the participants, 83.8% did not participate in a club or extracurricular activity. Second, self-esteem, self-resilience, peer relation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adaptation to school life, but relying on a mobile phone was correlated negatively. Third,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variables for adaptation to school life, as self-esteem, self-elasticity, and positive perceptions of parenting attitudes increased, Adaptation of a single parent's child to school life was more successful. Additionally, as annual family income and reliance on mobile phones increased,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was less successful.

Key Words : 학교생활적응(adaptation to school life), 개인자원(individual resources), 가족자원(family resources), 발달환경자원(developed environmental resources)

##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과거에 비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 형성과정은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추세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한부모 당사자와 그들의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여러 측면의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내·외적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응 문제 등이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양상은 아니다. 최현숙(2004)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박진영(2000)은 가정이 구조적으로 결손 되었더라도 가족 내 자원 및 강점을

찾으며 생활하게 될 때 긍정적인 적응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에 따라 문제상황을 보다 잘 극복하고 적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문제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심리·사회적 혼란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는 높은 혼란감이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생활의 적응은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양부모 중심의 연구(임수경·이형실, 2007; 임정아, 이인

수, 2006; 공계수, 2005)가 다수이고, 한부모가족인 경우 청소년자녀의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 특성 중 한 영역에 제한되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강부자·김은혜·노충래, 2012; 이성애, 2010; 박상희, 2009; 강창실, 2008; 전유진, 2006; 신진희, 2005)들이 다수로 최근까지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서 양부모 가족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의 학교생활적응 양상이 큰 차이가 없거나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며(오승환, 2001; 김희정, 2003; Lisbeth, 2003; 정혜경, 2002) 관련 변인 중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의 적응정도가 높았으며, 통제와 간섭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유안진 외, 2004; 권용준·김영희,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구정화, 2005; 전유진, 2006)를 통해볼 때, 가족구조적 특성보다는 다른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이 가족구조별로 차이의 일관성이 없고, 가족구조특성 이외의 변인의 영향이 더 크며, 한부모가족 자녀대상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종합할 때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변인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개인자원 변인, 가족자원 변인, 발달환경자원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발달환경자원 변인 중 하나인 통신기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학교생활에 부적응(김덕희, 2005; 박수혁, 2009; 박수빈, 2012)

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휴대폰 사용이 교사 및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김혜주, 2012; 이민형,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컴퓨터 및 휴대폰의 사용시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고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정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는 않아 구체적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 특성의 영향정도를 고찰한 연구들은 개인, 가족 등 각 영역 중 한 두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으로 단순한 영향력을 고찰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정영금(1995)은 가족자원관리란 가족의 인적·물적·환경적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함으로써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자원관리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 중 하나만 살펴봐서는 안 되며,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자원은 학교생활적응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속적으로 관련되어 질 수 있으며, 자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 가족, 발달환경을 단순히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니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측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원을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 측면으로써 자아존중감, 자아탄력

성, 또래애착 등으로 보았으며, 가족자원은 주로 가정의 소득과 한부모의 인적자원인 양육태도, 학력, 직업, 종사자위치 등으로 보았다. 발달환경 자원은 청소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요인으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매체사용과 동아리활동 참여경험 등으로 보았다.

최근 가족자원경영학 관점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가계자산(고선강, 2014), 자원에 따른 삶의 질(손진분·박미려, 2007) 등의 주제들의 연구가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계선자·유경아, 2010; 구효정·장윤옥, 2009; 이경은·이기영, 2008), 시간관리 행동(남경애·고선강, 2008; 최남숙·유소이, 2002)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관리 현황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관련 자원들이 학교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가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청소년자녀의 자원변인을 밝히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증진 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내 자녀의 개인 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를 둘러싼 자원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부모가족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한부모가족내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한 두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적응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여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적응이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자신의 욕구 충족에 맞추어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간의 역동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말한다(김태연, 2008).

양순미·유영주(2003)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들의 행동들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수업에 잘 참여하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형임 외(2012)는 학생 개인이 학교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충족과 성장을 위해서 학교환경 및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학교환경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학습활동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 친구,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부재라는 구조적 결손으로 인해 학업성취와 사회적 적응상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 결석과 같은 문제행동

을 일으키는 등 학교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일반적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와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애정이 결핍되어 있어서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 및 일탈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최은미, 2007).

이처럼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실패는 비행과도 관련성이 높는데, 이태상(2013)과 이상호(2011)는 학업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친구관계 등의 문제행동 발생빈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도 더 수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기광도(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가구에 따른 비교 결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비행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에서 학교규칙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모든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박상희(2009)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교규칙, 교사관계, 또래관계 등에서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정혜경(2002)과 구차순(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비교연구에서 두 집단의 자녀들은 학습활동의 적응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규범 준수 및 교우관계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우관계에서는 양부모가족 자녀가 한부모가족 자녀보다 적응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학교규범 준수에서는 오히려 한부모가족 자녀가 양부모가족 자녀보다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의 자녀라도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줄 경우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가족 내 자원 및 강점을 발견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가 일관하지 않는 것은 한부모라는 외형적 특징보다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 등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학교적응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 2.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에 속하는 자원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자원 변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자원 변인을 성별, 자이존중감, 자이탄력성, 또래애착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연구별로 그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 몇몇 연구(정영주, 2009; 박미선, 2007)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밝히고 있고, 또 다른 연구(임정아·이인수, 2006)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명훈(2007)은 인문계 고등학생과 달리 공업계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이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신윤자(200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외적 스트레스로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자아탄력성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갖는데 스트레스는 저하시키고 학교생활적응은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박상희, 2009; 강창실, 2008).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는 학교생활의 적응과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임수경·이형실, 2007; 황매향·여태철, 2006).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이혜순·옥지원, 2012; 임수경·이형실, 2007; 황매향·여태철, 2006). 이혜순과 옥지원(2012)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업성적이 높고 충동성이 낮을수록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임수경과 이형실(2007)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하여 교사 및 또래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황매향과 여태철(2006)도 유사하게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주요변인이 밝혀져 본 연구에서 개인자원으로 포함하였다.

청소년은 부모-자녀관계 중심의 아동과 달리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또래와 밀착된 관계 형성으로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학

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장석진 외(2011)는 또래관계에서 친밀한 의사소통과 신뢰관계가 형성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류경희(2003)는 지지적이고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학업에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 등 부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때 또래애착형성이 낮아져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Berndt & Keefe, 1995). 따라서 안정된 또래애착을 형성할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변인들은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나타난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에서도 관련 변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가족자원 변인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가족변인은 부모, 형제자매 관련 변인과 가족생활관련 변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변인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형제자매유무,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의 중사자위치, 연간가구소득 등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회성, 책임성, 협동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하게 작용된다. 즉, 권위적이거나 방임적인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인 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근·이기학, 2008; 장영애·박정희, 2008). 김지근과 이기학(2008)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

도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일 경우 자녀의 또래관계와 도덕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적응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비행행동과는 부적관계를 보임으로써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형제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이현화(2012)와 김미숙(2006)의 보고에 따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습활동을 제외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측면에서 형제가 있는 학생들이 형제가 없는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동아가 형제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송외전, 2012). 뿐만 아니라, 형제 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형제수가 많을수록 학교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효경, 201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부모의 종사자 위치 등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집단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박은영, 2011; 이인혜, 2008),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최문정, 2006), 부모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수록 자녀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rady & Matthews, 2002). 즉,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부모님이 불안정한 종사자 위치에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아지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내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요한 자원임으로 본 연구에서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발달환경자원 변인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발달환경은 컴퓨터 사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동아리활동 참여경험 등의 변인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컴퓨터 사용빈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학습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2008; 장수나, 2007). 반면에 컴퓨터 게임에 몰입되지 않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형, 2012; 박미영, 2008).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곽민주·이희숙, 2009). 특히,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민형(2008)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 및 또래 관계가 좋음을 보였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이 학교행사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준, 2007). 최형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교내·외 동아리활동에 만족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게 되어 그 결과 학습활동을 잘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교사 및 또래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등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유진이(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사관계, 교칙 준수,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활동 등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발달환경변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부모가족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 연구에서 영향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한부모가족 자녀의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한부모가족 자녀의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학령기 전반에 걸친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관찰하기 위한 패널을 구축하고자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자료 중 1차년도 중학교 1학년이다. 본 자료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층화단단계 집락표집을 시행하

여 선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전체 사례수는 2,351명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응답자 중 한부모가족이라고 응답한 총 28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교생활적응, 독립변인은 개인자원 변인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가족자원 변인에 부모양육태도, 발달환경자원 변인에 컴퓨터 사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종속변인

###### (1) 학교생활적응

본 척도는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교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5문항을 제외하고 김지경 등(2010)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묻는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학습활동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여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제를 빠뜨리지 않는 등 학습활동의 참여도에 따른 적응력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규칙은 당면역할을 잘하기, 급식실 차례 지키기, 복조에서 조용히 다니기 등의 학교규칙을 잘 이행하는 정도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하거나 친구와 어려움없이 교제를 잘 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선생님을 마주치는 일이 반가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 2) 개인자원 변인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척도를 변인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남들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의 긍정적 질문과 때때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며 실패자라고 느끼는지의 부정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 (2) 자아탄력성

본 척도는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으로 권지은(2003)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내용으로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잘 이겨내는 지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또래애착

본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또래애착척도(IPPA)를 황미경(2010)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문항으로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영역은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고민과 문

제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문항은 친구와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며 자신의 속마음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문항은 현재 친구들의 무관심속에 외로움을 느껴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지를 묻고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의사소통과 신뢰는 점수가 높고, 소외는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애착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63이었다.

## 3) 가족자원 변인

### (1) 부모양육태도

본 척도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허묘연(1999)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척도를 수정하여 재구성한 20개 문항으로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감독은 보호자가 자녀의 일과를 얼마나 많이 감독하고 있는지를 묻고, 애정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힘들 때 용기를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합리적 설명은 보호자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지 묻고 있다. 비밀관성은 보호자가 야단을 칠 때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지의 내용이며, 과잉기대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가 지각할 때 부담스러운지를 묻고 있으며, 과잉간섭은 보호자가 작은 일에도 간섭하는지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보고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보았다. 본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74이었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변인	척도	문항수	신뢰도 계수
중속변인	학교생활적응	20	.84
개인자원변인	자아존중감	10	.86
	자아탄력성	14	.86
	또래애착	9	.63
가족자원변인	부모양육태도	20	.74
발달환경자원변인	컴퓨터사용빈도	10	.63
	휴대전화 의존도	7	.84

4) 발달환경자원 변인

(1) 컴퓨터 사용빈도

본 척도는 10개 컴퓨터 사용 항목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의 내용은 학습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이용정도,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이용정도, 게임 및 오락 이용정도, 채팅 및 메신저 이용정도, 전자우편(e-mail) 이용정도, 커뮤니티 활동정도, 개인 홈페이지 활동정도, 온라인 거래 이용정도, 댓글을 다는 정도, 성인사이트 이용정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점에서 ‘자주 사용한다’ 4점으로 각 항목의 사용정도를 묻고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63이었다.

(2)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도는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7개 문항을 통하여 휴대전화 의존 정도를 측정하였다. 질문내용은 휴대전화 사용시간, 휴대전화가 없을 때 심리적 불안정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과 중속변인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관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증여부를 실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과 가족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52.8%, 여학생이 47.2%로 남학생 비율이 높았고,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형제자매 유무로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82.7%, 외동이 17.3%로 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학력, 직업, 종사자 위치를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M(%)	
개인자원 변인	성별	남	150(52.8)
		여	134(47.2)
가족자원 변인	형제자매	유	235(82.7)
		무	49(17.3)
	부모의 학력	중졸 이하	17(6.1)
		고졸	179(63.9)
		전문대 졸	33(11.8)
		대졸 이상	51(18.2)
	부모의 직업	관리자	33(15.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0(9.2)
		사무종사자	18(8.3)
		서비스종사자	40(18.3)
판매종사자		34(15.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3.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9.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6.0)	
단순노무 종사자	32(14.7)		
부모의 종사자 지위	임금/봉급 근로자	171(70.1)	
	고용원을 둔 사업주	20(8.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3(21.7)	
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33(11.6)	
	1000-1500만원 미만	69(24.3)	
	1500-2000만원 미만	40(14.1)	
	2000-2500만원 미만	31(10.9)	
	2500-3000만원 미만	17(6.0)	
	3000만원 이상	94(33.1)	
	평균	2,252만원	

\* 각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사례수의 차이 있음.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6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이상 18.2%, 전문대졸 11.8%, 중졸 이하 6.1% 순이었다. 한부모의 직업으로는 서비스종사자가 1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종사자 15.6%, 관리자 15.1%, 단순노무 종사자 1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지위는 임금/봉급 근로자가 70.1%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21.7%, 고용원을 둔 사업주 8.2%의 값으로 나타났다.

가구 연소득의 평균은 2,252만원이었으며, 3000만원 이상이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미만 24.3%, 1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미만

14.1%, 1000만원 미만 11.6%, 2000만원 이상에서 2500만원 미만 10.9%, 2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 6.0%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다.

## 2.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들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2.69점으로 중간 값인 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서 응답자들이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인 학습활동은 2.60점, 학교규칙은 2.69점, 교우관계는 2.91점, 교사관계는 2.55점으로 하위변인 모두 중간 값보다 높았고, 하위변인 중 교우관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적응이 가장 낮았다.

둘째, 응답자들의 개인자원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각각 2.74점과 2.87점으로 중간 값인 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중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또래관계의 전체평균은 2.90점으로 또래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하위변인인 의사소통은 2.81점, 신뢰는 2.91점, 소외는 2.0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원만하며, 적절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소외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한부모가족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2.87점과 2.38점으로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하위변인별 평균점수로 살펴보면, ‘감독’은 2.97점, ‘애정’은 2.89점, ‘합리적설명’은 2.75점, ‘과

잉기대’는 2.53점, ‘과잉간섭’은 2.31점, ‘비일관성’은 2.29점으로 하위변인 모두 중간 값인 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감독하며, 자녀를 훈계할 때 그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지각하는 반면에,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비일관적이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잉간섭하거나 기대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발달환경으로 컴퓨터 사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동아리참여경험 여부 등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컴퓨터 사용빈도로 ‘게임 및 오락’과 ‘학습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이용’이 각각 3.27점, 3.2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2.65점, ‘채팅 및 메신저’ 2.65점, ‘개인 홈페이지 활동’ 2.58점, ‘넷글 달기’ 2.52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2.29점, ‘전자우편’ 2.03점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값인 2점보다 높게 나타나 컴퓨터 사용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휴대폰 의존도는 2.02점으로 중간 값인 2점에 가까운 점수로 본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의존도가 보통 수준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컴퓨터 및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동아리 참여경험으로는 교내와 교외 모두 경험이 없는 경우가 각각 72.5%, 95.1%로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가 중학교 1학년으로서 동아리 활동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 3. 한부모가족 자녀의 관련변인들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3〉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

변인	내용		M(SD)/N(%)
학교생활적응	학 습 활 동		2.60(.49)
	학 교 규 칙		2.69(.49)
	교 우 관 계		2.91(.45)
	교 사 관 계		2.55(.68)
	전 체		2.69(.39)
자 아 존 중 감			2.74(.55)
자 아 탄 력 성			2.87(.50)
또래관계	의 사 소 통		2.81(.62)
	신 퇴		2.91(.70)
	소 외		2.05(.68)
	전 체		2.90(.51)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감 독	2.97(.73)
		애 정	2.89(.72)
		합리적 설명	2.75(.71)
	전 체		2.87(.57)
	부정적	과 잉 기 대	2.53(.70)
		과 잉 간 섭	2.31(.61)
비 일 관 성		2.29(.69)	
전 체		2.38(.55)	
컴퓨터 사용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2.65(.85)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		3.26(.72)
	게임 및 오락		3.27(.95)
	채팅 및 메신저		2.65(1.13)
	전자우편(e-mail)		2.03(.94)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2.29(1.09)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2.58(1.22)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1.98(1.05)
	댓글 달기		2.52(1.12)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26(.54)
휴대전화 의존도			2.02(.68)
동아리 참여경험	교내 동아리활동	참여경험 있음	78(27.5)
		참여경험 없음	206(72.5)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경험 있음	14(4.9)
		참여경험 없음	270(95.1)



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지각한 보호자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양육태도( $r=-.170, p<.01$ ) 및 휴대전화 의존도( $r=-.171, p<.01$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학력( $r=-.124, p<.0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을수록 한부모가족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부모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으로는 가구연간소득( $r=-.145, p<.001$ )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발달환경자원 변인인 컴퓨터 사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사용빈도는 휴대전화의존도( $r=.191, p<.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연간소득이 낮아지며, 컴퓨터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진다.

#### 4.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실시한 결과,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1.03에서 1.55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I 단계에서는 개인자원 변인을 투입하고 II 단계에서는 가족자원 변인을 투입하고 III 단계에서는 발달환경자원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첫째,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자원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

I 을 살펴보면, 전체 영향력은 28.7%였고, 자아탄력성( $\beta=.342, p<.001$ ), 자아존중감( $\beta=.242, p<.001$ )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교적응력이 높았고, 또래애착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가족자원 변인을 추가한 모델II의 전체 영향력은 36.2%로 모델I 보다 설명력이 7.5%p 증가하였다. 자아탄력성( $\beta=.332, p<.001$ )의 영향력은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모델II에서 추가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beta=.264, p<.001$ )는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beta=.200, p<.01$ )의 영향력은 떨어졌다. 연간소득( $\beta=-.139, p<.05$ )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보다는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형제자매 유무, 부모학력 및 종사자 위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며, 가족연간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델II에 발달환경관련변인을 추가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III 을 살펴보면, 전체 영향력은 38.6%로 모델II보다 2.4%p 높았다. 자아탄력성( $\beta=.329, p<.001$ ),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beta=.229, p<.001$ )의 영향력은 유의한 수준을 높게 유지하였고, 모델III에서 추가된 발달환경자원 변인 중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 $\beta=-.190, p<.001$ )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beta=.180, p<.01$ ), 연간소득( $\beta=-.121, p<.05$ )의 영향력은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개인변인 중에서 성별( $\beta=-.148, p<.05$ )의 유의한 수준이 나타났다. 반면에 컴퓨터 이용빈도 및 동아리 연간 참여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표 5〉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beta$	$\beta$	$\beta$
개인 자원 변인	성별	-.095	-.105	-.148*
	자아존중감	.242***	.200**	.180**
	자아탄력성	.342***	.332***	.329***
	또래관계	.082	.067	.106
가족 자원 변인	부모 양육태도	긍정적	.264***	.229***
		부정적		
	형제자매 유무		.071	.089
	사회적 지위	부모학력	.063	.048
		부모종사자지위 연간 소득	-.042 -.139*	-.059 -.121*
발달 환경 자원 변인	컴퓨터 이용 빈도			-.021
	휴대전화 의존도			
	동아리 연간참여	교내동아리활동		.037
		교외동아리활동		.027
Constant(상수)		1.269	1.029	1.277
R <sup>2</sup>		.287	.362	.386
F값		23.794***	13.870***	11.175***

\*p<.05, \*\*p<.01, \*\*\*p<.001

- 1) 성별: 0=여자, 1=남자
- 2) 형제자매: 0=형제자매 있음, 1=외동
- 3) 부모학력: 0=고졸이하, 1=전문대졸이상
- 4) 부모종사자지위: 0=임금 근로자, 1=자영자 및 사업주
- 5) 동아리연간참여: 0=참여경험 없음, 1=참여경험 있음

않았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 관련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Ⅲ의 전체 영향력은 38.6%로 모델Ⅱ보다 2.4%p 높았으며, 모델Ⅰ 보다는 9.9%p 높게 나타나 관련변인을 투입할수록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자원뿐만 아니라 가족자원 및 발달환경자원을 모두 고려한 실천적 접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개인자원 변인 중 자아탄력성은 가족관련 변인 및 발달환경관련 변인을 함께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자원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혜순·옥지원, 2012; 신윤자, 2005)와 유사하였다. 즉, 청소년기 자녀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주요자원이 됨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내·외적지원이 요구된다. 한 예로 한부모들이 자녀에게 긍정적 모델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을 모델링하여 자녀의 개인자원을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복지 실천현장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한부모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를 모델링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자원 변인 중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구연간소득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적절한 감독과 조언을 하고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가 중학교 1학

년 학생으로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자녀의 연령에 맞도록 부모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들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자녀의 발달단계와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부모역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교육은 부모 또는 자녀의 한쪽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심리정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양육태도를 갖추도록 돕고, 자녀는 부모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가족소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박은영, 2011; 이인혜, 2008)와 다른 결과로, 소득자체보다는 소득과 관련된 다른 변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부모의 소득과 관련된 다른 변인을 투입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환경관련 변인 중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부적응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학업적 부적응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곽민주, 이희숙, 2009)와 유사하였다. 즉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은 휴대전화 과다사용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며, 교우관계에서는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통신기기 사용의 통제는 부모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부모들은 생계와 자녀양육 등 다른 생활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짐으로써 자녀의 일상행동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는데 물리적·심리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통신기기, 시간, 용돈 등을 자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역할교육에 대한 외부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을 토대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타당화 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학년의 중학생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도의 데이터로 한국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속에서 청소년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최근의 자료를 통한 청소년기의 빠른 변화를 반영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시의성 강한 청소년 관련 실천프로그램 마련에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1) 강부자·김은혜·노충래(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이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2) 강창실(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계선자·유경아(2010). 청소년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과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91-108.

4) 고선강(2014). 한부모 가계의 자산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5) 공계숙(2005). 중학생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광민주·이희숙(2009). 청소년의 휴대폰이용실태와 중독적 이용.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83-205.

7) 광효경(2013). 중학생의 형제수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구정화(2005).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구차순(2002). 한부모가족의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구효정·장윤옥(2009). 휴대전화의 사용동기 유형과 손실지각 정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281-305.

11) 권용준·김영희(2011).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자아조절이 게임 과몰입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6), 99-121.

12) 기광도(2009). 결혼과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행사정책연구, 20(1), 41-70.

13) 김덕희(2005).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미숙(2006).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김미숙·박민정·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6) 김원준(2007).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소외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17) 김원형(2012).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몰입, 우울성향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김지근·이기학(200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패턴과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9(3), 1183-1200.
- 19) 김태연(2008).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통한 성취,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김혜주(2012).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회성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김희정(2003). 저소득층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남경애·고선강(2008). 청소년의 시간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 인문계고,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103-117.
- 23)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학가정학회지, 41(2), 47-166.
- 24) 박미선(2007). 초등학교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박미영(2008).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몰입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박상희(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27) 박수빈(2012). 중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생활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박수혁(2009).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사회성 발달,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박은영(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30) 박진영(2000). 결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파워먼트 요소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손진분·박미려(2007).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45-65.
- 32) 송외전(2012). 부와 모의 양육태도,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강인성간의 관계 : 외동아와 형제아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신윤자(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양순미·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36) 오승환(2001). 저소득 결혼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7)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

- 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38) 유진이(2007). 학교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29-144.
- 39) 이명훈(2007).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2(2), 1-22.
- 40) 이경은·이기영(2008). 청소년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과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어머니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과 관련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119-145.
- 41) 이민형(2008). 중학생의 휴대폰사용정도에 따른 충동성, 대인관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이상호(2011). 청소년의 학교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행동연구, 16, 161-185.
- 43) 이성애(2010).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이연숙(2008). 중학생들의 인터넷중독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이인혜(2008).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과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6) 이태상(2013). 중학생의 문제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345-360.
- 47) 이현화(2012). 초등학생의 부모 맞벌이와 형제유무에 따른 스트레스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8) 이혜순·옥지원(2012).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438-446.
- 49) 임수경·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3), 169-183.
- 50) 임정아·이인수(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51) 장석진·송소원·조민아(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에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52) 장수나(2007). 초등학생들의 컴퓨터게임중독과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3) 장영애·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2), 69-85.
- 54) 전유진(2006).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모·부자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5) 정영금(1995). 사회교육에서의 가족자원관리 교육의 전개방향. 대한가정학회지, 33(5), 269-278.
- 56) 정영주(2009).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양성평등의식 및 학교생활적응도 분석-단성교육의 관점에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7) 정혜경(2002). 단친가족의 가족구조 및 기능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8) 최남숙·유소이(200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 1-16.
- 59) 최문정(2006). 아동의 부, 모,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0) 최은미(2007).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및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1) 최현숙(2004). 결손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및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2) 최형임 · 이재성 · 문영경(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63) 황매향 · 여태철(2006). 초등학교생의 적응과 자  
아존중감의 관계. 아동교육, 15(3), 165-185.
- 64) Berndt, J. & Keefe, K.(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65) Brady, S. S. & Matthews, K. A.(2002).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and ethnicity on adolescents' exposure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7, 575-583.
- 66) Lisbeth T. Pike.(2003). The Adjustment of Australian Children Growing up in Single-Parent Families as Measured by Their Competence and Self-Esteem. Childhood, 10(2), 181-200.

- 투 고 일 : 2014년 3월 12일
- 심 사 일 : 2014년 4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5월 8일